

북광주농협, 공공기관 손잡고 농촌 활력 높인다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도농 상생 MOU
농번기 일손돕기·농산물 소비 확대 협력
농촌 현장 어려움 해소 위한 지원 강화

북광주농협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촌 지원에 나서며 도농 상생 협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북광주농협은 13일 "전날 광주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공단 본부 회의실에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에 대응하고 도농복합지역인 광주 북구의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 기반 금융·유통기관인 북광주농협과 도심형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협력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와 판로 확대,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 농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광주농협은 지역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에 집중하고, 공단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도농 상생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촌 지역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유출 등으로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 현상이 반복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광주농협은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북광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12일 지역본부 2층 휴라운지에서 계통 조직 간의 소통 문화를 확대하고 협력적인 관계 정착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제공>

농협광주본부, 농업·농촌 가치 확산 미래 역량 결집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개최

생성형 AI 활용·스토어 교육 등 진행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3일 "전날 지역본부 2층 휴라운지에서 범농협 조직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 계통 조직 간의 소통 문화를 확대해 유연하

고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구현을 위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범농협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조직 간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 위한 '농심천심 썬진 만들기' 팀빌딩 프로그램과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발맞춘 '생성형 AI 활용과정 및 NH UP스토어 교육'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안태호기자

또한 참석자들은 사업별 정보 공유를 통해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철호 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바쁜 일정 중에도 계통 간 상생을 위해 모인 직원들의 뜨거운 열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상생의 농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새우 전염병 '복합 진단키트' 기술이전

도해양수산과학원, 전국 최초 개발

'급성간체장괴사병+흰반점병' 결합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13일 "새우 양식 산업 피해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급성간체장괴사병(AHPND) 진단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 기존 흰반점병(WSD)과 결합한 '복합 진단키트' 기술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복합 진단키트는 새우 주요 법정 전염병 2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통합형 기술이다.

어업인이 진단키트 중독 구매 부담을 줄이고 검사 시간과 비용을 동시에 절감토록 설계됐다.

급성간체장괴사병은 간체장 손상을 유발해 단기간에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치명적 세균성 질병이다.

흰반점병은 전염성과 확산 속도가 높은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꼽힌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4년부터 2025년



까지 전북대학교 신기술 교육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또 지자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기술개발부터 기술이전까지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허를 신속 출원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해 산업화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수산질병관리사를 활용한 현장 예방, 진단키트 보급, 교육·홍보를 확대해 예방 중심의 수산질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구입카드 발급 농업 경영체 대상

평균가격-기준가격 차액 70%까지

전남도가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나선다.

전남도는 13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로 트랙터, 경운기, 콤팩트 등 농기계 3종과 시설하우스다.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에 사용하는 경유와 시설재배 난방용 등유·중유·LPG 등이다.

지원 기간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 3종은 3-9월, 시설하우스는 3-4월과 9월에 사용한 면세유다.

지원 기간 중 면세유를 구입하면 각 유종의 월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70%까지 지원한다.

유종별 지원 한도는 국비 기준 1당 경유 138.4원, 등유 143.9원, 난방용LPG 154.8원이다.

사업 신청은 올해 10월31일까지 본인 신분증을 준비해 면세유 관리지역 농·축협에 방문 신

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후 보조금이 확정되면 본인의 면세유 구입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이전에 구매한 실적도 모두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농업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면세유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은 "기한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축협 방문 시 잊지 말고 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시원기자



대리점 완전독점 대동강맥주 공급업체 공고 모집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아시아 최고의 라거!!!
국내 최초 (북한)대동강 맥주가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엽니다!

- 대동강 유역의 맑은 물과 엄선된 보리로 완성된 깊은 풍미
- 마케팅 없이도 고객이 먼저 찾는 이름
- 지역별 한정 대리점 모집을 통한 독점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 불황에도 대동강 맥주는 출시전부터 예약문의가 폭주하는 검증된 아이템입니다

모집대상 주류유통 유경험자 및 신규 사업 희망자(주류 면허 없어도 됨)

지원내용 영업권역보장 홍보물지원, 광고지원

특 전 초기 계약 시 계약금 최소화

성공은 타이밍입니다! 대동강 맥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각 시·군 선착순 모집★ 문의 | 자연과 생명 연구소 080-374-5046